

대학생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성격특성, 자기관리, 진로태도를 중심으로-

김경화¹, 이철인^{2*}

¹대구한의대 대학원, ²문경대학교 보건행정과

A Study on Effects of the Level of Campus Life Satisfaction - Focused on personality traits, self-management, career attitude -

Kyung-Wha Kim¹, Cheol-in Lee^{2*}

¹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for the Elderly, Daegu Hanny University

²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Munkyeong College

요 약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진로태도성숙도, 자기관리 그리고 대학생활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대구, 경북에 위치한 대학 중 403명을 연구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과 성격특성, 진로 태도 및 자신의 관리 등 요인을 중심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실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활만족도의 빈도와 일반적 특성에 비추어볼때, 전체 대학생활만족도는 3.29점으로 5점 만점 중 보통이상을 보였고, 신입생들이 2학년 이상의 학생들보다 높았다. 또한 성격이 개방적일수록 성실성이 높으며, 자기 관리는 생활 관리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고유 행동관리와 신체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성격은 친화성이 적고, 준비성이 많은 학생들이 진로태도성숙도의 대학생활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친화적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진로태도 성숙도에서 준비를 잘 할 수 있고, 대학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을 잘 지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어 : 성격특성, 자기관리, 진로태도, 대학생활만족도, 성숙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areer maturity, self - management, and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403 students from Daegu and Gyeongbuk provinces were analyzed and analyzed b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cusing on factors such as general characteristics, personality traits, career attitude and self - management. As a result, according to the frequency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overall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was 3.29 out of 5 out of 5, and fresh students were higher than second year students. Also, the more open the personality, the higher the sincerity. The more self - management is the student who manage the life, the better the proper behavior management and physical management. In addition, students with a lower level of personality and a higher degree of readiness were more satisfied with college life than attitudes toward career maturity than those with lower grades. Based on these results, students with friendly characteristics can prepare well in career attitude maturity It is important to guide students well so that they can improve their college life satisfaction.

Key Words : Personality traits, Self-management, Career attitude, The level of campus life satisfaction, Maturity

1. 서론

현대사회의 해결과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은 청년과 연관된 문제일 것이다. 청년들의 실업과 그로 인한 자살시도는 날로 늘어나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잘 나타낸다. 특히 대학 진학률이 83 %가 되는 높은 시점과

*Corresponding Author : Cheol-in Lee(ici2700@hanmail.net)

Received March 22, 2018

Accepted April 20, 2018

Revised April 09, 2018

Published April 30, 2018

대학생의 문제가 크게 대두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청년기 대학생들의 복지시설과 제도는 많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학업과 취업 등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학교 내에서는 이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1].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상담실을 학교 내에 운영하고는 있지만 현실이 취업상담, 장학금 관련 사업 등이 주 업무를 이루고 있어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주 제한적이고, 좀 더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일부만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다[2]. 우리나라 현 대학생들이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도움이 못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은 자신의 독자적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자신의 독자적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교육 및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실정에서, 고등학생의 사고가 남아있는 규제적이고, 의지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대처방법으로 대부분 또래에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혼자 결정한다. 계속 늘어나는 부정적문제에 부딪히는가하면, 목표를 세우고 전진해나갈 때 미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가정이나 사회적 관점도 기대 받고 있다. 또한 대학생활만의 독특한 대학문화 공간에서, 대인관계 능력의 미흡과, 문화의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3].

이정운(2009)은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는 전반적인 대학생활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적응하지 못하고, 졸업 후 자신의 사회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오게된다고 하였다[4]. 이와 같이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 범국가적 시선과 해결방안이 간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 청년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은 오랜기간 동안 큰 관심 없이 넘어갔다. 대학의 교육 중 중요한 과제 하나가 그 학생들이 모든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이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경험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생활을 만족하는지 파악하고 평가하여, 이를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성격특성, 진로태도성숙도, 자기관리, 대학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하고 학교사회복지로서의 개입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연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특성과 자기관리 그리고 진로태도가 대학생활만족과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로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들을 분석하고 위기학생들의 면담을 통해 보다 나은 대학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에 연구 목적이 있다. 대학 캠퍼스 내에서 점점 늘어나는 부정적 학생들과 발달 과업적이며, 예방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사회복지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재의 사회적 관심과 접근방법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2.1 대학생활 만족도 개념

대학생활 만족도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어떻게 적응을 해나가야 하느냐가 중요하며, 그 가운데 학생들이 교과 활동과 동아리 활동 그 외 다른 행사 활동에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스스로 느낌으로써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교수와 학생들 상호간의 관계가 잘 형성됨으로써 만족스러운 상태에 위치해 있을 때라고 하였다. 또한 김준근의, 연구에서 대학생활 만족도는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며, 학생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문제에 대한 태도, 학생 스스로의 자신 문제, 교수와 나아가 학교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였다[5]. 학생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대학생활의 학문적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해야 만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학문적 환경은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6]. 조성희는, 대학에 대한 유대 정도와 자신의 모교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과 호감의 정도으로써, 학업에 대한 몰입 정도를 판단하고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그 개념이다[7].라고 하였다.

Astin 연구에 의하면 교육환경은 학생들에게 감각적 수용에 변화를 주는 모든 행동, 사태, 그 외 모든 조건들을 포함한 총체적 자극체로 보면서 대학만족연구에서 “학생의 만족은 캠퍼스의 참여를 통해서 증가된다[8].”고 결론지었으며, 이준표는 “학생들이 캠퍼스에서의 긍정·적극적 경험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학과의 적합성을 개발시키고 연결시켜야 한다.”고 하였다[9]. Kelley는 “대학 내 개성, 전통문화와 대학 내의 물리적 및 구조적 요소 등의

상호작용 요인으로 구성되는 문화적 복합”로 보았으며 [10]. 박용석은, 대학은 다양한 구조와 기능 복합체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집단으로 학문탐구를 목적으로 하던 전통적인 이념의 대학을 대신하여 모든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이념으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1].

그러나 전통적으로 대학교육은 교수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이었으나, 변화하는 다양한 욕구와 그 기대에 답하기 위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의문문제의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미래의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대학조직에서 희망과 목표의식을 학생 자신과 일체화하여 자신이 대학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서로 연결된 관계를 형성하며, 소속대학에서의 지속적인 학업을 유지하므로 스스로 만족된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Vroom은 “직무만족을 사람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무 역할에 대한 개인의 감성적 방향”이라고 정의하였고[12]. Locke는 직무만족을 “개인이 직무를 평가하거나 직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경험을 평가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쾌함이나 혹은 긍정적 정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13]. Hoppock은 직무만족을 심리적, 생리적, 환경적, 상황의 결합 상태를 조직 구성원들이 하는 것라고 정의하고 있다[14].

2.2 대학생 생활 만족도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들의 대학생 생활만족도에 대한 과거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이덕로 이성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에서 대학에 대한 자긍심과 학업실력, 입학 당시의 자신이 느끼는 대학생 생활 기대감, 학교생활의 특별활동이 영향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또한 이정운 연구에서는 학년과 성별이 대학생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고학년일수록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대학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또한 단과대학별로도 큰 만족도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4]. 한은성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학교생활과 교육의 질, 성별, 학년별, 선택 경위, 대학진공에 따른 복지 후생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도 차이를 본 결과 대부분 대학생 생활이나, 대학 행정 복지 서비스에 대해 변인들 간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16]. 그러나 대학선택의 경위, 전공에 따라 대학교육의 질의 차이가 있었고, 대학 선택 경위에 따른 대학 행정 복지서비스에 의한 만족도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김나영은 ‘대학생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대학생 생활만족도의 통계변인인 학년과 학교성적이 대학생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성적이 높을수록, 저학년일수록, 대학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고 분석하였다.[1].

황윤경의 연구에서는 ‘지방대 대학생의 자기 효능감, 대학생 생활만족도, 스트레스지각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관계’에서 년별, 전공의 선택 동기와 학업성적, 그리고 휴학에 대한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 여부 등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저학년 일수록, 높은 학업성적일수록, 대학생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전공 선택시 성적보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높게 나타나는 등 진로 성숙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생 생활 만족도를 높게 평가를 했다[17].

하재민의 연구에 의하면 ‘사립대학 대학생의 대학생 생활만족도 분석’에서 대학교육 성과와 대학의 특성화 비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재학인원 10,000명 이하 소규모 대학의 학생이, 그 이상의 대규모 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양 교육 및 환경, 학생 활동지원 등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대규모 10,000명 이상 대학의 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

지금까지 선행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대학생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서비스, 교육환경 등 환경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며, 더불어 자긍심, 대학생 생활의 기대함, 스트레스, 직업전망 등 심리적 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개인적 자원 및 지지에 해당되는 자기관리능력과 태도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어 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생활만족도를 분석하는데 있어 성격특성, 자기관리특성, 진로태도특성을 중심으로 영향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격특성과 자기관리, 진로태도와 관련하여 대학생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가설을 배경으로 일반적 특성을 배경변수로, 성격특성, 자기관리와 진로태도를 독립변수로 또한 대학생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제시하

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대학생활만족도는 성격유형과 자기관리와 진로 태도 등의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 가정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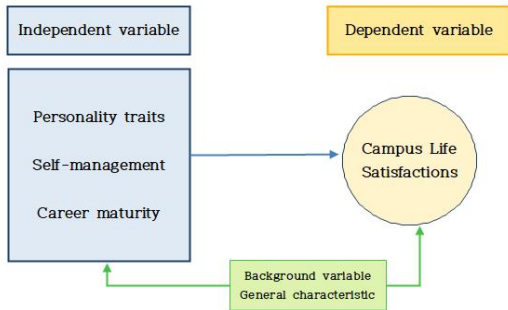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대구경북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의 재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 450부의 직접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47부를 제외하고 통계자료를 403명(89.5%)로 사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에 앞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20부를 먼저 사전조사로 배부 실시하고 응답에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불편할 경우를 파악하고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설문방법은 자가 평가 기입법(Self administration method)으로 대상자의 응답을 실시하였으며, 2주간에 걸쳐 2015년 6월 8일부터 2015년 6월 19일까지 조사기간으로 진행되었다.

3.3 변수의 측정도구

종속 변수인 대학생활만족도는 17문항으로 총 110문항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는 일반적 특성 6문항, 성격특성 25문항, 자기관리는 15문항 그리고 진로태도 4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3.1 종속변수 : 대학생활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는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의 대학교 고객만족도 척도와 환은성의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를 활용하였다. 척도는 대학교육의 질 9개 문항, 행정복지서비스 6개 문항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16]. 응답범주는 문항 모두 5점 척도로 구성되어 하였으며, 범주는 '1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 매우 그렇다'까지이다. 점수가 높다는 것으로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914이고, 각각의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대학행정복지서비스가 .916, 대학교육의 질 .861로 모두 신뢰도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3.3.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성격요인, 자기관리요인, 진로태도요인, 일반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성격특성요인은 박상석이 사용한 도구를 참조하여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9]. 세부적으로는 신경증(5문항), 외향성(5문항), 친화성(6문항), 개발성(5문항), 성실성(3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Likert Scale) 척도로 측정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등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체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819이고, 각각의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신경증가 .845, 외향성 .820, 친화성 .746, 개발성 .717, 성실성 .638로 나타났다.

다음 자기관리특성요인을 라주미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3개 영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생활관리영역(5문항), 고유행동관리영역(3문항), 신체관리영역(3문항) 구성되어 있다[20]. 전체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822이고, 각 영역별 신뢰도는 생활관리가 .822, 고유행동관리영역 .691, 신체관리영역 .822로 나타났다.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Likert Scale)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 다른 독립변수로 진로태도성숙도를 들 수 있다. 진로태도성숙도 측정도구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개인의 이해와 선호도를 바탕으로, 그들의 진로를 선택 결정하는데 있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5개의 하위요인인 결정성, 목적성과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요인으로 확고성의 정도에 관한 문항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진로방향에 대한 결정성은 총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두번째 요인인 진로선택을 통하여 가치를 추구하고 현실과 내용과 욕구의 타협정도를 나타내는 목적성은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번째 요인인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미래에 얼마나 성공가능한지에 대한 개인의 믿음과 확신 정도를 의

미하는 내용의 확신성은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네번째 요인인 진로결정에 필요한 준비, 자신의 계획정도, 사전이해, 그 직업과 진로에 대한 참여관심 정도의 내용을 포함한 준비성은 9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마지막 다섯 번째 8문항은 진로선택을 혼자 할 수 있는지의 독립성 요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총47문항이다. 응답범주는 5점 리커트(Likert Scale) 척도의 매우 그렇다(5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진로태도를 평가하였다. 전체 척도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820이고, 각각의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결정성이 .909, 확신성 .838, 준비성 .812, 목적성 .845, 독립성 .822로 나타났다.

끝으로 일반적 특성요인은 6문항으로 성별, 학년, 전공, 학교형태, 근로경험여부, 부모가 기대하는 직업수준 등으로 구성하였다.

3.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격특성, 자기관리, 진로태도가 대학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PC 18.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t-test, ANOVA 분석,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먼저 빈도분석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t-test와 분산분석(ANOVA)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만족도에 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끝으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성격특성, 자기관리, 진로태도등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403명 중 여학생이 65.8%(265명), 남학생이 34.2%(138명)로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년분포는 2학년이상이 56.8%(229명), 1학년이 43.2%(174명)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생이 29.5%(119명), 전문대학생이 70.5%(284명)이었다. 전공계열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연계열이 28.5%(115명), 인문계열이 34.0%(137명) 기타37.5%(151

명)로 나타났다. 끝으로 근로경험유무에서 경험이 있는 학생이 83.9%(338명), 경험이 없는 학생이 16.1%(65명)이고, 부모가 기대하는 직업의 수준은 높다가 49.6%(200명), 보통이하가 50.4%(203명)으로 나타났다.

Table 1. Distribution of subjects subject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03)

Division	Characteristic	Frequency (persons)	percentage (%)
Gender	men	138	34.2
	woman	265	65.8
Grade	1 Grade	174	43.2
	2nd grade or higher	229	56.8
University Type	College	284	70.5
	University	119	29.5
Department	Humanities	137	34.0
	Natural series	115	28.5
	Etc	151	37.5
Working experience	yes	338	83.9
	no	65	16.1
Parent expectation Occupational perception	Below average	203	50.4
	height	200	49.6

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만족도간의 차이 분석

일반적 특성요인별 대학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Characteristic	frequency 403	M	S · D	t/F	p-value
Gender	man	138	3.28	.60	1.343	.180
	woman	265	3.20	.60		
Grade	1 grade	174	3.34	.53	3.230	.001
	2nd grade or higher	229	3.14	.63		
University Type	College	284	3.21	.59	-.880	.379
	University	119	3.27	.62		
Department	Humanities	137	3.28	.58	2.322	.099
	Natural series	115	3.13	.62		
	Etc	151	3.26	.59		
Working experience	yes	338	3.21	.61	-1.529	.127
	no	65	3.33	.51		
Parent expectation Occupational perception	Below average	203	3.21	.57	-.449	.654
	height	200	3.24	.62		

(p < 0.05, **p < 0.01)

먼저 각 특성별 대학생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학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생활만족도의 차이는 2학년 이상 3.14점, 1학년 학생들이 3.34점으로 1학년이 높았다($t=3.230, p<.01$). 이는 2학년 이상의 학생들보다 신입생들이 대학생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각 요인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4.3 성격요인, 자기관리, 진로성숙도, 대학생생활만족도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이 연구에 사용된 특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적률 상관계수(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그리고 각 요인들 간의 판별타당도 확보를 위해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각 요인들간 .90 이상을 넘지 않으면 상관관계는 하위 요인들 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90을 넘는 상관계수는 없으므로 판별타당도는 확보하였다[21].

4.3.1 성격요인간의 상관관계

성격요인들의 관련성을 보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Correlation of personality factors

	Neurosis	Extroversion	Affinity	Openness	Integrity
Neurosis	1.00				
Extroversion	-.045	1.00			
Affinity	-.057	.505**	1.00		
Openness	-.009	.470**	.341**	1.00	
Integrity	-.003	.372**	.316**	.265**	1.00

(*p < 0.05, **p < 0.01)

신경증요인은 다른 요인과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친화성($r=.505, p<.01$), 개방성($r=.470, p<.01$), 성실성($r=.372, p<.01$)등 외향성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방성($r=.341, p<.01$)과 성실성($r=.316, p<.01$)과의 친화성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성은 성실성($r=.265, p<.01$)과 관련성이 많았다. 즉, 성격이 개방적일수록 성실성이 높은 것으로 의미한다.

4.3.2 자기관리요인의 상관관계

자기관리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자기관리 요인들 간의 판별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90을 넘는 상관계수는 없으므로 판별타당도는 확보하였다[21].

Table 4. Correlation of self-management factors

	Life management	Unique Behavior Management	Body management
Life management	1.00		
Unique Behavior Management	.474**	1.00	
Body management	.432**	.449**	1.00

(*p < 0.05, **p < 0.01)

자기관리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생활관리 요인은 고유 행동관리요인($r=.474, p<.01$)과 신체관리요인($r=.432, p<.01$)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 관리를 잘 할수록 고유 행동관리와 신체관리를 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유 행동관리 요인은 신체관리요인($r=.449, p<.01$)과의 관련성이 높으며, 이는 고유 행동관리를 잘 할수록 신체관리를 잘함을 의미한다.

4.3.3 진로태도성숙도요인 상관관계

진로태도성숙도 요인들 간의 판별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90을 넘는 상관계수는 없기에 판별타당도는 확보하였다[21].

Table 5. Correlations of career attitude maturity factors

	Crystallinity	Assurance	Readiness	Purpose	Independence
Crystallinity	1.00				
Assurance	.403**	1.00			
Readiness	.180**	.454**	1.00		
Purpose	.516**	.128*	.134**	1.00	
Independence	.444**	.409**	.402**	.162**	1.00

(*p < 0.05, **p < 0.01)

진로태도성숙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결과를 보면 Table 5와 같다. 확신성($r=.403, p<.01$), 준비성($r=.180, p<.01$), 목적성($r=.516, p<.01$), 독립성($r=.444, p<.01$)요인 간에 결정성요인은 모두 정의상관관계가 있다. 준비성($r=.454, p<.01$), 목적성($r=.128, p<.05$), 독립성($r=.409, p<.01$)과 확신성은 모두 정의상관관계가 있었고, 목적성($r=.134, p<.01$), 독립성($r=.402, p<.01$)의 준비성은 정의상관관계, 그리고 목적성은 독립성($r=.162, p<.01$)과 정의상관관계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진로태도성숙요인의 하위요인들 간에는 서로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3.4 대학생활만족도요인의 상관관계

대학생활만족도 요인들 간의 판별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90을 넘는 상관계수는 없으므로 판별타당도는 확보하였고[21], 대학생활만족도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Correlation of factors of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Administrative and welfare services	Quality of university education
Administrative and welfare services	1.00	
Quality of university education	.613**	1.00

(* p< 0.05, ** p< 0.01)

행정·복지서비스요인은 대학교육의 질 요인(r=.613, p<.01)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학교육의 질이 높을수록 행정·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높음을 알 수 있다.

4.3.5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격특성, 자기관리, 진로태도성숙도가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Table 7과 같다.

1단계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요인을 투입하여 어떤 요인이 대학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이들 독립변수가 일반적 특성에 따라 대학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3.7%였으며, 이 식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F=2.566, p<.05). 학년($\beta = -.157, p<.05$)은 대학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즉 고학년보다 저학년이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았다.

2단계에서는 일반적 특성요인에 조사대상자의 성격특성을 투입을 하였으며, 그 결과로는 대학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15.4%로 11.7% 1단계보다 증가하였다. 이 식은 F-값이 6.477(p<.01)로 유의하였다.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학년($\beta = -.124, p<.05$), 외향성($\beta = .151, p<.05$), 친화성($\beta = .200, p<.01$)요인이었다. 즉, 고학년보다 저학년이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았고,

Table 7. Factors Affecting College Life Satisfaction

Variable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Rare coefficient	β	Rare coefficient	β	Rare coefficient	β	Rare coefficient	β
Gender	.051	.040	.034	.027	.020	.016	.066	.052
Grade	-.191	-.157*	-.151	-.124*	-.173	-.142**	-.173	-.142**
University Type	.077	.058	.030	.023	.048	.036	.047	.036
Department	.026	.020	.005	.004	.009	.007	-.022	-.017
Working experience	-.106	-.065	-.144	-.088	-.125	-.076	-.144	-.088
Parent expectation	.054	.044	-.035	-.029	-.049	-.040	-.057	-.047
Personality traits	neurosis		-.020	-.026	.006	.008	-.005	-.007
	Extroversion		.155	.151*	.087	.085	.019	.018
	Affinity		.247	.200**	.231	.188**	.240	.195**
	Openness		.019	.021	-.031	-.034	-.002	-.002
	Integrity		.087	.074	.002	.001	-.028	-.024
self care	Life management				.029	.025	-.038	-.033
	Unique Behavior Management				.165	.171**	.088	.092
	Body management				.078	.081	.107	.111
Care maturity	Crystallinity						.097	-.099
	Assurance						.038	.033
	Readiness						.222	.180**
	Purpose						.092	.106
	Independence						.082	.107
F	2.566*		6.477**		6.203**		5.913**	
Explanatory power(R2)	.037		.154		.183		.227	

(*p<0.05, **p<0.01)

외향적이고 친화성이 있는 성격의 학생들이 대학생활만족도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자기관리요인을 일반적 특성요인과 성격특성에 투입한 결과 대학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18.3%로 2.9%가 2단계보다 가하였다. 이 식은 F-값이 6.203(p<.01)로 유의하였다.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학년($\beta = -.142, p<.05$), 친화성($\beta = .188, p<.01$), 고유 행동관리($\beta = .171, p<.05$)요인이었다. 즉, 고학년보다 저학년이, 성격은 친화성이 많고, 고유 행동관리를 잘 하는 학생들이 자기관리도 잘하며 대학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요인, 성격특성, 자기관리에 진로태도성숙도요인을 투입한 결과 대학생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22.7%로 4.4%가 3단계보다 증가하였다. 이 식은 F-값이 5.913($p < .01$)로 유의하였다. 대학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학년($\beta = -.142, p < .05$), 친화성($\beta = .195, p < .01$), 준비성($\beta = .180, p < .01$)요인이었다. 즉, 고학년보다 저학년이, 친화성이 많은 성격과 준비성이 많은 학생이 진로태도성숙도의 대학생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태도성숙도, 자기관리 그리고 대학생생활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구, 경북 지역에 위치한 대학교의 재학생 403명을 연구대상으로 자기기입법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생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일반적 특성에 따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대학생생활만족도는 3.29점으로 5점 만점에 보통이상을 보였다. 각 특성별 대학생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학년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성별, 대학유형, 전공계열, 근로경험여부, 부모기대 직업지각요인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2학년 이상 3.14점, 1학년 학생들이 3.34점으로 학년에 따른 대학생생활만족도가 1학년이 높았다($t = 3.230, p < .01$). 즉, 대학생생활만족도는 신입생들이 2학년 이상의 학생들보다 높다. 이러한 결과는 조연교는 성격강점과 활용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 진로태도성숙도 등 대학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여 이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5]. 김나영도 ‘대학생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대학생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저학년일수록 대학생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대학생생활만족도가 높았다고 하여 이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1]. 이정운은 ‘대학생의 대학생생활만족도 연구’에서 전공 선택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을수록 대학생생활만족도가 높았으며, 학년이 대학생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4]. 이는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나아가 학년에 따른 만족도저하 이유를 면밀히 모색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격특성, 자기관리, 진로태도성숙도가 대학생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결과, 최종 4단계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요인, 성격특성, 자기관리에 진로태도성숙도요인을 대입한 결과, 22.7%로 3단계보다 4.4%가 대학생생활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이 식은 F-값이 5.913($p < .01$)로 유의하였다. 대학생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은 학년($\beta = -.142, p < .05$), 친화성($\beta = .195, p < .01$), 준비성($\beta = .180, p < .01$)요인이었다. 즉, 대학생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고학년보다 저학년이, 친화적 성격과, 진로태도성숙도의 준비성 많은 학생들이었다.

조연교의 연구에서는 성격강점 하위요인으로 진로와 관련한 태도, 행동을 증가시키는 진실성, 사랑, 자기조절, 학구열, 감상력으로 나타났으며, 공정성, 사랑, 학구열, 자기 조절 등 대학생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하였다.[5] 이는 자신의 성격적 강점의 개발이 학교생활적응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선행연구와 부합되며, 이 결과에 따른 공통된 성격강점의 개발과 진로 지도 그리고 진로 프로그램 활용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추후 성격강점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두의 결론을 종합해 보면, 대학생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대학생의 성격특성 중 친화성이며, 진로태도성숙도 중에서는 준비성이었다. 그리고 고학년보다 저학년이 대학생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로 말미암아 친화적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태도 성숙도에서 더욱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낮아짐으로 저학년에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학생들을 더욱 친화적 성격을 가지고 진로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심한 지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생활만족도에 대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성격요인, 자기관리요인, 진로태도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으나 향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과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대학생 상담 등의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진지하고 집중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제안한다.

REFERENCES

[1] N. Y. Kim.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tress, Social Support,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2] Y. J. Kim. (2002). *The Function of College Counseling Center and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School Social Work*. Graduate School of Kyungsung University. Busan.

[3] B. M. Kang. (2003). *Psychological Stress Factors and Coping Strategies of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Differences in Gender, Grade, and Series*.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4] J. Y. Lee. (2009). *A Study on College Life Satisfaction with College Students*. Master '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anto National University. Japan.

[5] Y. K. Cho. (2014). *The effect of personality strength and utilization on college students' career attitude matur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graduate school, oul.

[6] H. K. Lee.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i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7] S. H. Jo.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Activity and Social Support, Academic Adjustment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8] A. W. Astin. (1984). Student involvement: A developmental theory for higher educ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4), 297-308.

[9] J. P. Lee. (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College Mentoring System on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10] H. H. Kelley. (1973). The process of causal attribution. *American psychologist*, 28(2), 107-128. DOI : 10.1007/978-1-4615-1489-3_5

[11] Y. S. Park. (2010). *A Study on Satisfaction Factors of University Education Service*.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Seoul.

[12] V. H. Vroom. (1964). *Work and Motivation*. New York: John Willey & Sons.

[13] E. A. Locke & G. P. Latham. (1990). *A theory of goal setting and task performanc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14] R. Hoppock. (1935). *Job satisfaction*. Oxford, England: Harper.

[15] D. R. Lee & S. S. Lee. (2002). Factors Affecting Student Life Satisfaction: Focused on Customer Satisfaction. *Research in Industrial Management*, 15, 1-24.

[16] E. S. Han. (2007).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School*

Life i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won National University, Suwon.

[17] Y. K. Hwang.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 Efficacy,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Stress Perception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Master 's Thesis. University of InJae, InJae.

[18] J. M. Ha. (2014). *Analysis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in Private Universit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umho University, Gumi.

[19] S. S. Park. (2009).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s of Big Five Personality Types on College Students' Career Behavior*.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Cheongju.

[20] J. M. La. (2012). *The Effects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Dance Major Students on Place Management and Academic Adjustment*.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21] H. S. Lee & J. H. Lim. (2005). *SPSS 12.0 Manual Statistical Analysis and Explanation*. Seoul: Bobmunsa.

김 경 화(Kim, Keung Hwa)

[정회원]



원장

- 2011년 2월 : 경북외국어대학교 상담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 2013년 : 경북외대 겸임교수 역임
- 2016년 2월 : 대구한의대학교 노인 의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 2015년 1월 ~ 현재 : 그린요양원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론, 노인의료복지, 노인상담론
- E-Mail : gcare365@hanmail.net

이 철 인(Lee, Chul In)

[정회원]



학 박사

- 1992년 8월 : 경일대학교 행정학사
- 1994년 2월 : 대구대학교 이학사
- 1998년 8월 : 국민대학교 스포츠학 석사
- 2003년 2월 : 대구한의대 보건학박사
- 2010년 2월 : 대구한의대 사회복지

- 2000년 ~ 우송정보대학 사회체육처방과 교수
- 2002년 ~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겸임교수
- 2005년 ~ 경북외국어대학교 건강복지학부 교수
- 2015년 ~ 현재 : 문경대학교 보건행정과 교수
- 관심분야 : 인간발달론, 해부생리, 운동처방, 보건교육
- E-Mail : ici2700@hanmail.net